

진동하는 설화

The Resonant Myth

2022-2025

이 인 찬

나는 북에서 태어나고, 남에서도 태어난 사람

I was born in the North, and born again in the South



김신조, Kim Shin-jo, 2022





돌이 장군, General Ttoli, 2025



신랑 김신조, The Groom, 2025





인터뷰, Interview, 2023

협력을 바탕으로 나라가 발전하며, 나라의
융성이 나의 발전의 근본임을 깨달아, 자유
와 권리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다하며,
스스로 국가 건설에 참여하고 봉사하는 국
민 정신을 드높인다.

반공 민주 정신에 투철한 애국 애족이 우
리의 삶의 길이며, 자유 세계의 이상을 실현
하는 기반이다. 길이 후손에 물려줄 영광된
통일 조국의 앞날을 내다보며, 신념과 긍지
를 지닌 근면한 국민으로서, 민족의 슬기를
모아 줄기찬 노력으로, 새 역사를 창조하자.

1968년 12월 5일

출려만 가니 어찌합니까.

선생님!

제가 가진 것이라곤 아무 것도 없습니다. 하지만 여성
가장 중요한 아름다
주는 쾌활하고 친절
한 몸매시, 모든 것
는 저의 배 놓을 수

몇살이냐고요?

부끄럽게도 스물
맑은 하늘에 떠
태양을 사랑하는 소
하늘을 아름답게
은 남자와 여자들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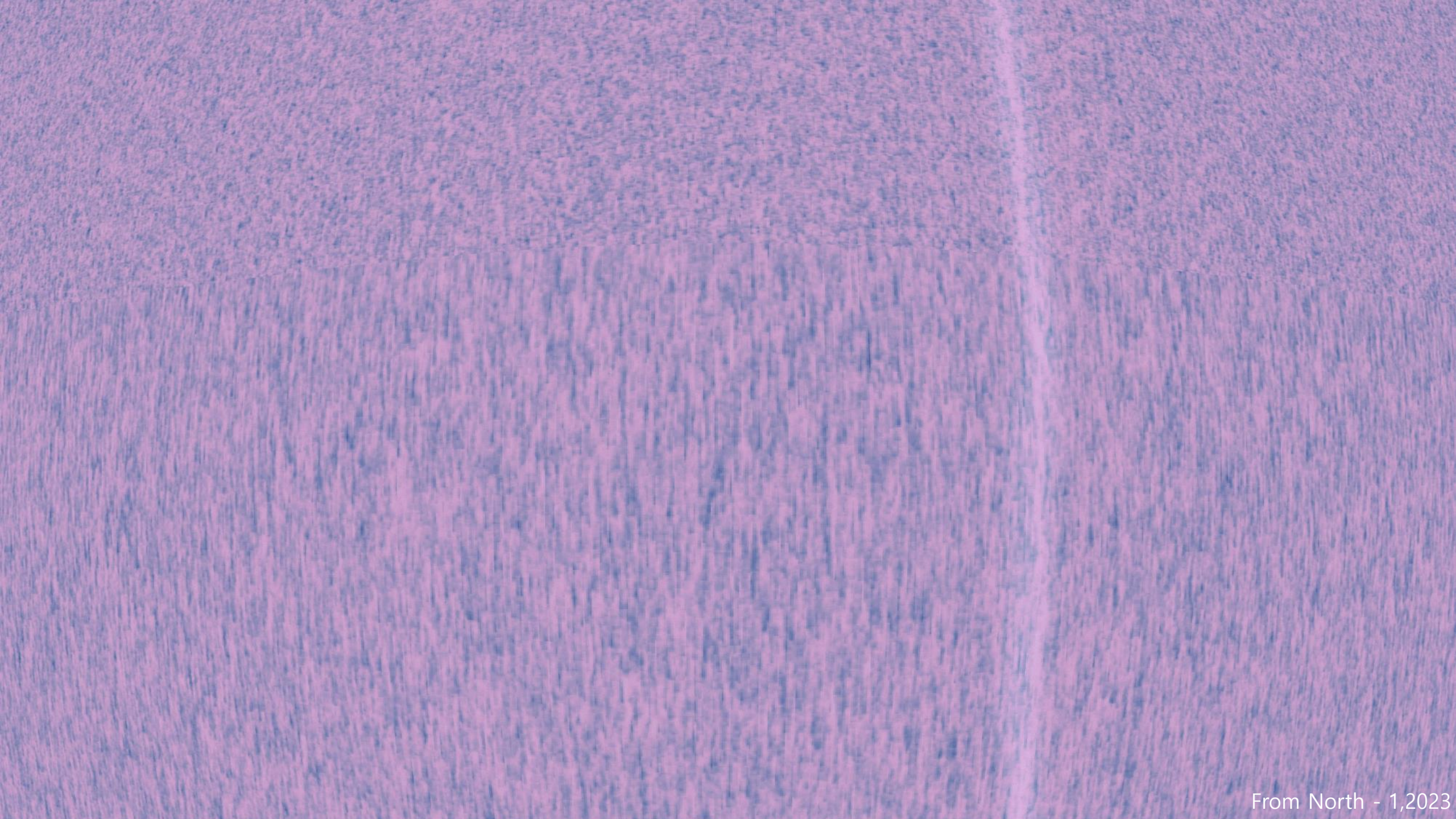
그렇기 때문에 하얀 드레스 곱게 입고 꽃다발을 한아름
웨딩 마취에 발맞추어 시집가는 기쁨을 잊지 못했다. 오조

바른 생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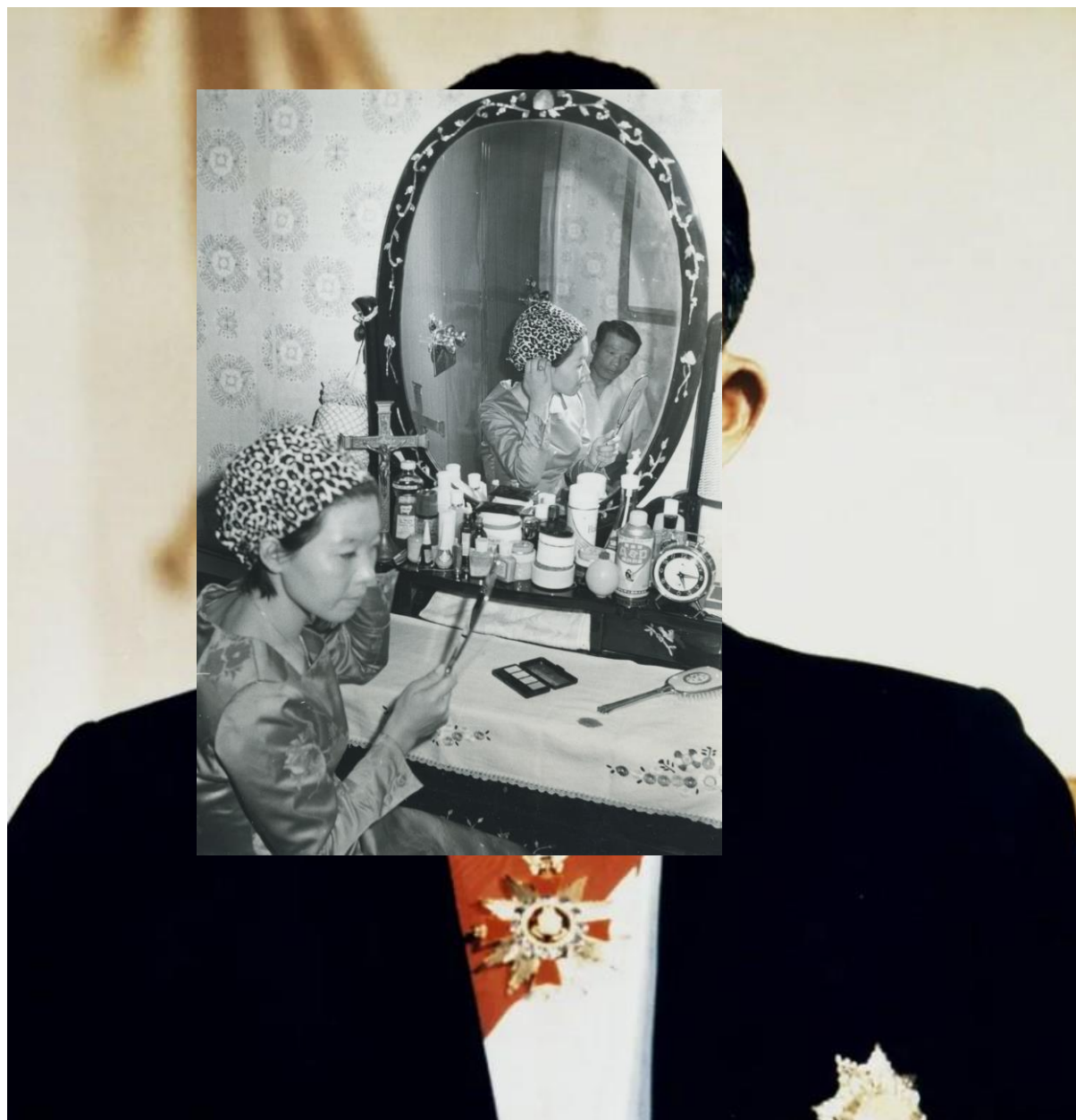
북쪽을 바라보는 김신조, Gazing North from the South, 2024





DMZ,20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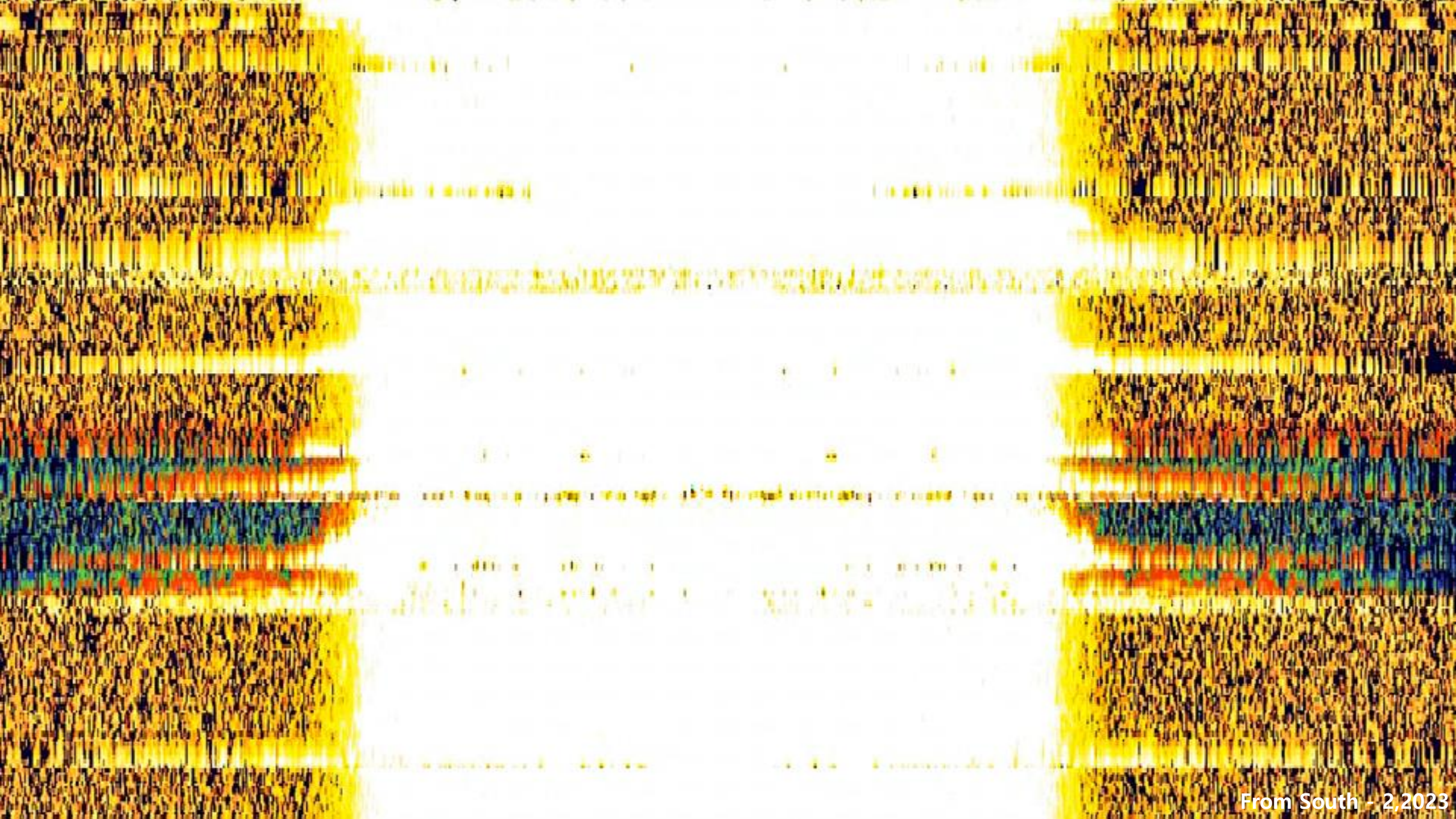
Untitled-1,2025



동상, Statue of Admiral Yi Sun-sin, 2025
주민등록증, ID Card, 20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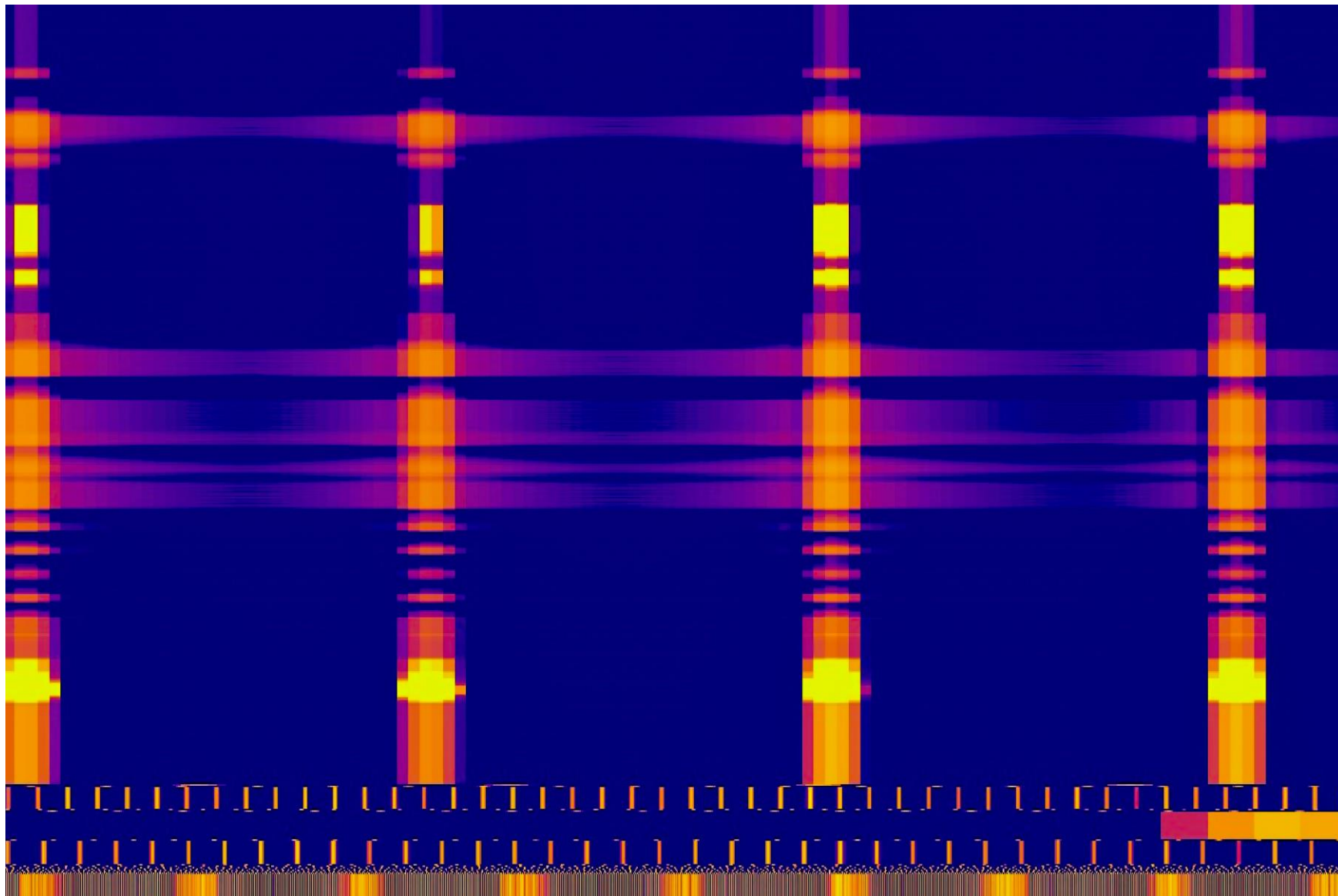


김신조와 최정화, Kim Shin-jo and Choi Jeong-hwa, 2023





김신조 인형, The Figure, 2023



Invisible Light-8,2023

그들에게 겁을 주었다가 회유하기 위해서 말린 오징어도 주고 엿도 주었다. 나중에 그들이 우리의 총을 만지작거리며 놀기도 했다. 그들을 살리고 죽이는 것은 이 숙영지를 떠날 무렵에 해야 할 일이었다. 그 때 우씨 형제들은 우리 일행이 31명이라는 것을 알 만큼 이 사람 저 사람과 이야기를 나누었다. 우리들은 불을 피워 엿을 녹여서 주었다. 처음에는 엿을 주어도 안 먹길래, 입에 넣어 주었다. 해가 뉘엿뉘엿 지고 있었다. 우리는 나무꾼들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를 놓고 고민하기 시작했다. 우리가 어떻게 행동을 할 것인가 본부로 무전을 쳤다. 이쪽에서 보낸 내용은 '나무꾼을 만났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가, 상부의 결심을 바란다'는 것이었다. 무전 연락이 되지 않았다. 암호문을 가지고 나왔는데 첫번째 숫자가 풀리지 않았다. 숫자를 풀어서 암호문을 맞춰 보면 지시 내용이 나오는데 전혀 해독할 수가 없었다. 착오였다. 우리는 남쪽에서 작전을 벌인 나흘 동안 한 번도 무전 연락을 하지 못했다. 내가 나중에 투항한 뒤에 수사 기관에서 무전을 풀었다면서 무전 내용을 가르쳐 주었다. 그 내용은 '원대 복귀'였다.

We first tried to intimidate them, then coaxed them by offering dried squid and traditional Korean taffy. Eventually, they began to play with our rifles, toying with them as if amused. Deciding whether to kill or spare them was a matter we had to settle as we prepared to leave the campsite. By then, the Woo brothers had spoken with enough of us to realize there were 31 men in our group. We built a fire and melted the taffy to offer it to them. At first, they wouldn't eat it, even when given. So we placed it directly into their mouths. The sun was sinking low on the horizon. We began to debate what to do with the woodcutters. We sent a wireless message to headquarters, asking, "We've encountered woodcutters—what should we do? We await your order." But the radio didn't connect. We had brought cipher codes with us, but the first number wouldn't decode. The message was encrypted, and without the correct number, we couldn't decrypt the instructions. It was a failure. During our four days of operations in the South, we were never able to make contact via radio. Later, after I surrendered, the investigators told me they had decoded the radio transmission. It said "Return to base."



사모 바위, Samo Rock, 20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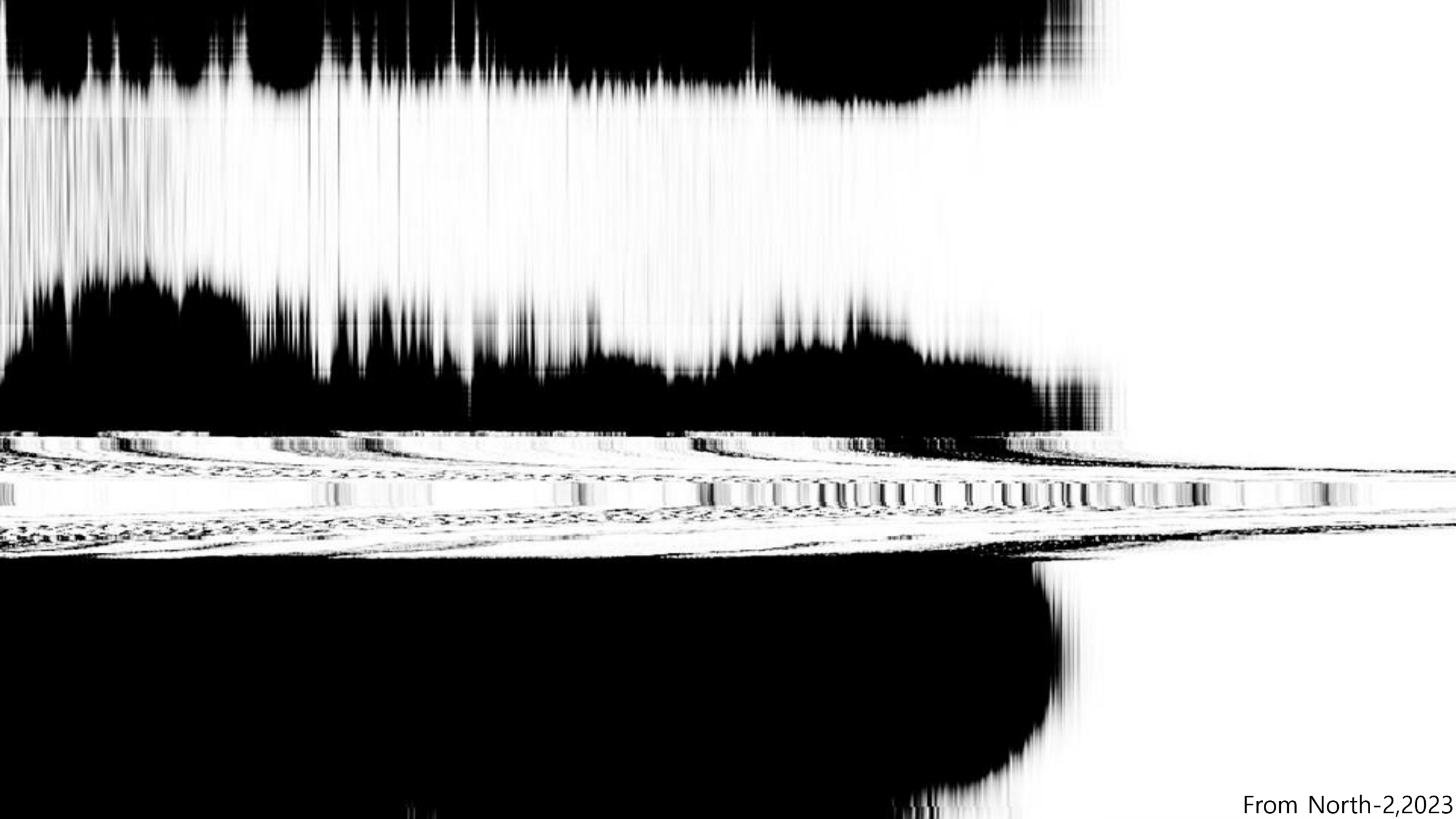


The Game:Life and Enemy,2023



서울시, Seoul City, 2024





From North-2,2023



흔적, The Mark, 2023



무명인, Unnamed Figure, 2023
 최규식 경무관, Chief Superintendent Choi Gyu-sik, 2023



금강이와 해랑이, Geumgang and Haerang, 2023



북쪽, Gazing Toward the North, 2023





손, The Hand of Kim Shin-jo, 2023



어느 늦은 저녁, 어머니께서는
나와 동생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동생의
임관이 있는지 얼마 되지 않은
때였다.

“너희는 잘 모르겠지만 예전에
북한에서 대통령을 암살하려던
사건이 있었다. 그 때 북에서 온
이들 가운데 모두 죽고 한 명만
살아남았는데 그 사람이 너희
이모부이다. 그 사람의 본명은
김신조다. 나는 한 때 너희 이모와
함께 살았던 적이 있었는데 그와
언니는 나라에서 늘 감시를 받았다.
나는 그 집에서 나와야 했다.
그리고 너희가 태어난 이후로
그들의 존재가 해가 될까봐
누구에게도 말한 적이 없었다.
한 때 그들을 멀리한 적도 있지만,
그 때의 일들은 잊을 수 없었다.”

One late evening,
my mother spoke to my younger sibling and me.
It was not long after
my sibling had been commissioned as a military officer.
"You may not know this,
but a long time ago there was an incident
in which North Korea tried to assassinate the president.
Among those who came from the North,
all were killed except for one man—
and that man is your uncle.
His real name is Kim Shin-jo.
I once lived with your aunt,
but she and her husband were always under the watch of the authorities,
shadowed by an unspoken suspicion.
I had to leave their home.
After you were born,
I never told anyone about them,
fearing their existence might one day bring you harm.
There was a time I kept my distance,
but I could never forget those days."



김신조와 최정화, Kim Shin-jo and Choi Jeong-hwa at the Beach, 2024



아이들을 돌보는 김신조, Kim Shin-jo Watching Over His Children, 2024





한탄강, Hantan River, 2024





반공 강연료로 받은 수석, Scholar's Rock from an Anti-Communist Lecture, 20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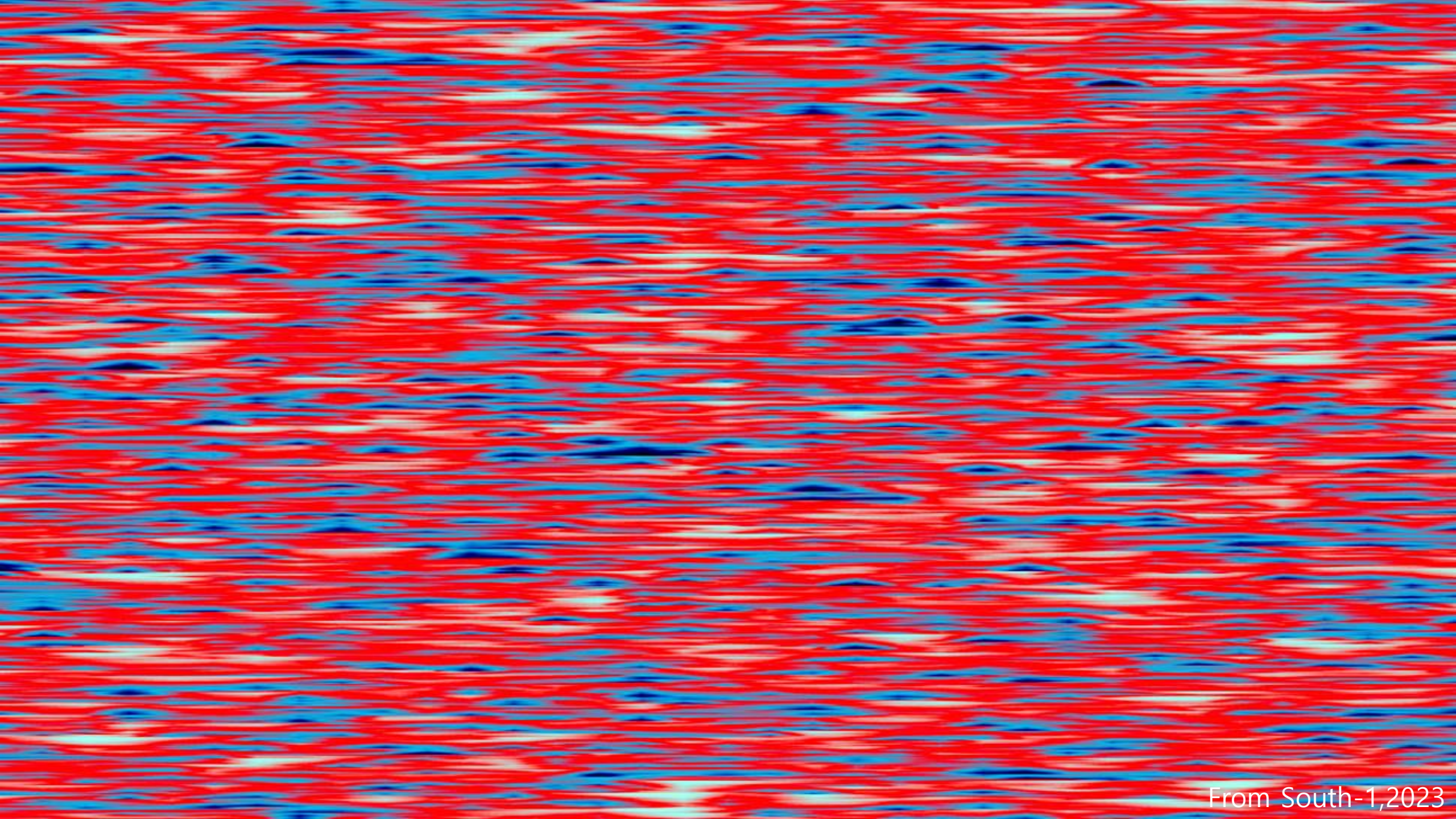
아이를 안고 있는 최정화, Choi Jeong-hwa Holding a Child, 2024



폭포 앞에서, Kim Shin-jo at a Waterfall, 2024



집 근처에서 김신조, Kim Shin-jo in the Vicinity, 2023



From South-1,2023

■ 작업노트

<진동하는 설화>는 한반도 현대사에 등장하는 인물을 둘러싼 역사적 맥락과 장소를 탐사하여, 그의 주변에 공고하게 구축된 이미지의 기원을 찾아 재구성하려는 작업이다.

김신조는 1968년 1월, 청와대 기습을 시도한 무장 공비 중 유일한 생존자이다. 그는 현재 한반도 분단의 현실 속에서 단순한 역사적 인물을 넘어, 국가가 만들어낸 서사의 중심에서 상징적인 존재가 되었다. 그 이미지와 의미는 우리 사회의 집단적 기억에 자리 잡았는데 본 작업은 그를 둘러싼 신화화된 고정된 서사의 구조를 조명하여 재고찰하고자 하는 의도를 담고 있다.

호명된 김신조의 개인의 서사는 우리 안에 내재된 역사적 트라우마와 분단 의식을 환기시키는 장치로 작동한다. 김신조라는 개인의 삶을 단순하게 재현하는 것이 아니라, 그를 통해 우리가 속한 세계와 그 안에 형성된 기억을 다시금 들여다보는 과정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

김신조 루트 곳곳에 도사리는 물질들은 그의 이미지를 고착시키는 역할을 한다. 이로 말미암아 물질성은 그의 존재를 이미지로부터 개방할 수 있는 실마리가 되었다. 특히 주목한 것은 물질성과 파동의 성질을 이중적으로 가지고 있는 빛의 특성이었다. <진동하는 설화> 에서 한반도 휴전선 위를 넘나들며 인간의 지각으로 감각할 수 없는 목소리는 빛의 이중성을 통해 가시화된다. 기계와 알고리즘의 개입으로 전환된 추상적인 형상들은 보이지 않는 존재를 드러낸다. 이는 분단선의 산물인 동시에 물리적 경계를 가를 수 있는 가능성이자 '익숙하지만 낯선' 기억과 정체성을 마주하고자 하는 시도이다.

빛의 파동은 휴전선의 경계 마냥 단절되어 들리지만 사실, 동시간대에 한반도를 타고 흐른다. 그곳에서 발견한 것은 위장하고 은폐된 목소리였다. 파동이자 입자로 존재하는 빛처럼, 재현된 결과물은 그의 존재와 마찬가지로 이질적이면서 동일성을 띤 존재처럼 보인다. 디지털의 입자를 드러내는 사진은 시지각에 침투해 감각의 일자(一者)를 교란시킨다. 그리하여 보이지 않는 빛은 산개하여 이 땅의 비극적 전말을 드러내고, 한반도에 살며 무감각해진 우리를 비춘다.

■ Artist Statement

<*The Resonant Myth*> is a project that follows the traces of a man from modern Korean history his life, his image, and the places that surround him. I wanted to understand how the story around him came to be, to return to its origin, and reconstruct it with a new gaze.

The figure at the center is Kim Shin-jo the sole surviving member of an armed group that attempted to infiltrate the Blue House in January 1968. Over time, he became more than just a historical person. In the context of Korea's division, his name has been absorbed into the national narrative, transformed into a symbol, a myth. That image, repeatedly shown and reproduced, has become embedded in our collective memory.

This work aims to unravel and examine the mythologized structure of that memory. Kim Shin-jo's personal story functions less as a biography and more as a trigger evoking the unresolved trauma of division still embedded in us. Rather than simply portraying his life, I wanted to use it as a way to revisit the world we inhabit and the memories that continue to shape it.

Scattered along the path he once walked are materials objects that freeze his image in place. But ironically, that very materiality also became a clue, a key, to opening up his presence. I was particularly drawn to the dual nature of light its material and wave like behavior. In this work, the unseen voice that crosses the DMZ becomes visible through the properties of light. The forms that emerge abstract and transformed through machines and algorithms begin to hint at something invisible yet present. This is both the result of division and a gesture toward overcoming physical borders. The 'familiar yet strange' voices, identities, and memories we meet through this work reveal something about ourselves.

The lightwaves, like the sounds across the ceasefire line, feel severed but in truth, they travel simultaneously across the peninsula. What I discovered there were voices disguised, hidden in plain sight. Like light, which is both wave and particle, the image becomes an unstable but consistent presence much like the man himself. Photography, in this project, exposes the pixel, the digital grain, disrupting the unity of perception. The unseen light scatters, illuminating the tragic layers of this land and in doing so, it reflects us, those of us who have grown numb from living here.